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수를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 가지에 앉아 울거늘, 낭자가 왈,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왈,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하거늘,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네라. 산호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일너라.

너무 으리으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靑雲)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옥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되, 사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 쥐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 월궁항아의 행차러라. 항아가 숙향을 보고 왈,

“반갑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하거늘,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항아가 옥황께 여쭙오되,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서 **복록***을 정하소서.”

상제 허락하셔서 여래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아뢰되,

“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셔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아뢰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 반도 두 개와 계화(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 들고, 한 손에 계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선군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소아가 쥐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 왈,

“봄날이 곧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하며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중략)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 와 이르되,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좇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거늘,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畵閣)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북쪽 옥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 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석가여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좇아서 상제를 뵈은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이선 왈,
“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부처 웃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과일을 주며 왈,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하거늘, 선이 받아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다 전의 친하던 벗일네라.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을 하고 모든 선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상제 전교*하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네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껌에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한 후 집에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복록 : 복되고 영화로운 삶.
* 전교 : 임금의 명령을 내림.

18.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 ②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 ③ 숙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 ④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모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 ⑤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②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 ③ 숙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숙향이 요지에서 겪은 일을 숙향에게 미리 알려 주고 있다.
 - ⑤ 숙향이 태을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 ② ㉡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③ ㉢은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 ④ ㉠, ㉡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 ⑤ ㉡, ㉢는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만 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①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 ②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 ③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 숙향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군.
- ⑤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22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드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새
㉡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갈을손가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피서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위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건줄 데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피서 본 적 전혀 업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룰가
엇언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확*이 앞에 잇고 부월*이 뒤에 이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는 것만 얻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조를 시기했나 귀신이 훼방했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괴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님이 어이 알겠는가
(중략)

피서서 이리하기 각시님 갈던들
설움이 이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가
차생의 이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식여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붙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륜명월 되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최고저

— 김춘택, 「별사미인곡」 —

*정확: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술.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상광 오색: 다섯 가지의 길한 빛.
*하일 청음: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나)

님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
월 췌녕쿨이 되야

그 나무에 그 췌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춘춘 저리로
춘춘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열거져 틀어져 밀부터 끝까지 조금
도 빈틈 업시 찬찬 굵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잇서

동(冬)첫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즌들 ㉢ 떨어질 줄 이
시랴

— 이정보 —

*님으람: 임은.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
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가 사십
삼 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
리고 술과 그릇가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
고서 돌아섰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잔 빼는 말
투를 흉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빛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리고는 분가루
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별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펼락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
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
물 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
렇게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
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 형
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경좌: 서남쪽을 등진 방향.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2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 ③ ㉢: 화자가 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24.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과거에 임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임에게 호소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삼사월 칠년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철이 납거미 나비 감돏’은 임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셋달’은 모두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6.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 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7.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 봅시다.

학생 1 :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

학생 2 :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학생 3 :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학생 4 :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칸,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쥘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켜김질하
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
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찌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권을 붙이었다: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딜웅배기: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나긋손: '저녁때'의 방언.

* 설: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2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딱'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① (가)는 ‘권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썩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어요. 피해자 쪽에서 5주 진단을 끊어 와서 올려대고 있어요. 타협 불라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찌 불안해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멍 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물에 올라와 못사람

들의 시선 속에서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히 상업 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경우에 학력이란 전연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살이 너무 썩어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에 부화뇌동하는 능력 그 자체일 테지만.

그러나 일의 선후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 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아들의 장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을 낭패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을.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 풍뎅이처럼 죽은 시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 버리는 늙은이를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父情)과 그것에의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 그게 내게는 적잖은 수확이었다.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 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에 틀림 없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만형,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 나는 인물과 동료향으로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또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력저력 살아 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 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어쩌면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긴 해도 그들이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이다.

(중략)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 판에는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아를 긁어 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히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 봐서 돈 벌기도 싫나 봐요, 그렇죠?”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잖은 말에 응했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해 볼까 어쩔까 싶어요.”

알았다,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새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토록 짓까불어라.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덩실하게 살려 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훑아 대는 이른바 출세 지향 주의자인 것 같다. 아무튼 흥미 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획일화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만사의 영구불변하는 ‘형평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고시에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못이 아도록 책상 앞에 앉았겠는가.

— 김원우, 「무기질 청년」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만집은 아버지의 학력이 아버지의 삶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다.
- ② 아버지는 이만집에게 경집이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 ③ 아버지는 부정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 ④ 이만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여겼다.
- ⑤ 이만집은 경집이 형의 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② ㉡: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 ③ ㉢: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표현이다.
- ④ ㉣: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발화이다.
- ⑤ ㉤: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심리에서 비롯된 발화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 ⑤ 여러 감각을 사용한 배경 묘사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도래할 비극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로,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 내부 이야기의 ‘나’와 ㉡ 외부 이야기의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 ① ㉠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는 ㉠에 대해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② ㉠가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는 ‘셋째 형’에 대해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③ ㉠가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 ④ ㉠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는 ㉠에 대해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⑤ ㉠가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는 ‘아버지’에 대해 ‘생래부터 착한 심정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